



HAL
open science

Special 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Introduction]

Luc Pecquet

► **To cite this version:**

Luc Pecquet. Special 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Introduction]: Film Reviews: Bataille sur le grand fleuve (Jean Rouch, 1951), Mammy water (Jean Rouch, 1955), Les maîtres fous (Jean Rouch 1955), Garçon boucher (Florian Geyer, 2014), Ngat is Dead: Studying Mortuary Traditions (Christian Suhr Nielsen, 2007), Flacky et camarades (Aaron Sievers, 2008).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2016 [Jeonju], 2016, pp.44-54. hal-04635697

HAL Id: hal-04635697

<https://hal.science/hal-04635697>

Submitted on 4 Jul 2024

HAL is a multi-disciplinary open access archive for the deposit and dissemination of scientific research documents, whether they are published or not. The documents may come from teaching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France or abroad, or from public or private research centers.

L'archive ouverte pluridisciplinaire **HAL**, est destinée au dépôt et à la diffusion de documents scientifiques de niveau recherche, publiés ou non, émanant des établissements d'enseignement et de recherche français ou étrangers, des laboratoires publics ou privés.

I I F F 2 0 1 6

2016. 09. 30. FRI - 10. 03. MON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국 제 무 형 유 산 영 상 축 제



CONTENTS

04. 축하	CONGRATULATIONS
10. 환영사	MESSAGES
13. 행사공간 안내	VENUE MAP
14.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6. 환영의 장	OPENING CEREMONY
17.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18. 디스커버리	DISCOVERY
42. 스페셜	SPECIAL
44. 스페셜1. 장 루슈 국제영화제 특별전	Special 1 :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55. 스페셜2. 아티스트 웨이	Special 2 : Artist Way
62. IIFF 패밀리	IIFF FAMILY
70. 포커스	FOCUS
72. 이매방	Lee Mae Bang
76. 춘향	Chunhyang
80. 씨네 콘서트	CINE CONCERT
83. 색인	INDEX
85. 필름제공처	PRINT SOURCE
86. 도움주신 분들	ACKNOWLEDGEMENTS
87.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집행위원회 & 스태프	IIFF EXECUTIVE COMMITTEE & STAFF
88. 발행정보	PROGRAM BOOK ACKNOWLEDGEMENTS

주최 · 주관

Presented by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집행위원회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후원

Supported by



파트너

Partner with



SPECIAL

스 페 셸



올해 스페셜 섹션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의 모델 과도 같은 장루슈국제영화제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관련 '스페셜 1: 장루슈국제영화제특별전 Special 1: Jean Rouch Film Festival'과 예술가들의 무형의 세계를 다룬 '스페셜 2: 아티스트 웨이 Special 2: Artist Wa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이자 시네마 베리테의 기수인 영화감독 장 루슈 Jean Rouch 는 1953년 인간사 박물관 Musé de l'Homme에서 발족한 인류학 영화 운동위원회Le Comité du Film Ethnographique (CFE)의 일원으로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인류학에 관한 영화들을 제작, 소개해 왔던 민족지 영화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장 루슈 국제영화제는 민족지영화제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영화제로,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연결고리를 살펴보고 고민하는 영화제입니다. 올해 장 루슈 국제영화제 특별전은 장 루슈 초기 단편 3편과 장루슈 영화제 색선 중 무형문화유산 부문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ward 수상작들 중 3편이 소개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전 소개와 영화 리뷰를 맡아주시길 댜께 Luc Pecquet 장 루슈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특별전 '스페셜 2: 아티스트 웨이'에서는 앙리 조르주 클루조 Henri-Georges Clouzot 감독이 피카소의 작업 자제를 실시간으로 담아내면서 그의 창작의 비밀을 영화 속에 담아내고 있는 <피카소의 미스터리 Mystery of Picasso >와 2015년 4월 작고한 포르투갈 영화의 거장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Manoel De Oliveira 감독에 대한 작품세계와 헌사가 영화적으로 담겨진 <영화, 마누엘 드 올리베이라, 그리고 나 Cinema, Manoel De Oliveira and Me >, 마지막으로, 작년에 타계한 승무와 살풀이춤 파운드 푸티지 형식으로 담겨있고 있는 <이매방: 발디덤, 손놀림, 몸글림에 대한 기록 Lee Mae Bang : The movement of step, hand, body >이 소개됩니다. 미술, 영화, 춤의 창조적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작품들은 무형유산 기록하고 가시화 하려는 영화적 시도도일 것입니다.

This year's Special Section is divided into two parts: 'Special 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dealing with the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that is akin to a role model for the IFF, and 'Special 2: Artist Way', dealing with the intangible world of artists.

Jean Rouch was a French cultural anthropologist and founder of cinéma vérité. As a member of Le Comité du Film Ethnographique (CFE), which was launched in 1953 at Musée de l'Homme, he was a giant in ethnographic films and continued to produce and introduce films about anthropology until 2002. Now in its 35th year, the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is the oldest of ethnography film festivals, and continues to ponder and observe various social and cultural links in human life. This year's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Special will be screening 3 of Jean Rouch's early shorts and 3 Intangible Heritage Award winners of the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Section. We'd like to thank to Luc Pecquet,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s festival director, for his film reviews and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The other part, Special 2: Artist Way, will be screening the following films: *Mystery of Picasso*, in which director Henri-Georges Clouzot puts into film Picasso's creative secrets by showing in realtime his painting in action; *Cinema, Manoel De Oliveira and Me*, a dedication to the late Portuguese master director Manoel De Oliveira who passed away in April 2015; and *Lee Mae Bang : The Movement of Step, Hand, Body*, a found footage format of the artistic world of Lee Mae Bang, the late holder of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Seungmu(Buddhist dance) and Salpuri Dance (Exorcism Dance). These films are the cinematic attempts to record and visualize the creative moments of art, film, and dance.

스페셜 1. 장 루슈 국제영화제 특별전

우선 이 특별전을 마련해 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측에 감사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모두 6편의 영화가 소개 될 예정입니다. 장 루슈 감독의 단편 3편, <하마 사냥 Hippopotamus Hunt (HH)>, <신들린 제사장들 The Mad Masters (MD)>, <맘마 물 Mammy Water (MW)>과 장 루슈 국제영화제(민족지 영화)에서 상영되었던 영화 3편, 플로리안 가이어 감독의 2013년 작 <정육점 견습생 Butcher Boy (France ; AB)>, 아론 니클라스 시베스 감독의 2008년작 <플래키와 친구들 Flacky and Comrades (France ; FC)>, 크리스찬 수어 닐슨 감독의 2007년작 <갓의 죽음: 장례전통에 관한 연구 Ngat is Dead : Studying MortuaryTraditions (Denmark ; ND)>가 그 주인공입니다. 마치 꿈같은듯도 동시에 현장 연구와 연관된 민족지적인 이 작품들은, 목적된 현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복원하고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야기를 들려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지' 기록을 위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영화입니다.

이들 영화에는 감독이나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각각 주목할 만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장 루슈의 영화에는 캐릭터들이 매우 적절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가이어 감독의 영화 <정육점 견습생>에도 이 캐릭터가 적절한 공간에 등장합니다. 또한 <갓의 죽음: 장례전통에 관한 연구>와 <플래키와 친구들>에서는 그들 자신이 장면을 창조하거나 장면 안에서 연기를 합니다. 이 영화들은 그들이 대변하는 사회와 단체에 대한 모든 것들, 그들이 일을 하고, 기획 하고, 생산하고, 관계 맺고, 함께 사는 방식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지만 메인 캐릭터들(배우들과 영화감독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와 의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갓의 죽음:장례전통에 관한 연구>와 <플래키와 친구들>은 놀랄 만합니다. 관계와 규칙, 행동, 권력 그리고 가족관계가 잘 드러나 있고, 이를 묘사하는 적절한 대사가 풍성하며, 이 모든 것은 보다 깊은 영상 인류학적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영상 인류학의 분야에서 영화창작 자들과 배우들의 조우와 호혜에 대한 질문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제작되는 각 영화들의 주제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민족지적 관계의 관점 뿐만 아니라 구조에 관련하여 특별히 <갓의 죽음: 장례 전통에 관한 연구>와 <플래키와 친구들>에 흥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들은 작품 안에서 태도, 관계, 견습 그리고 기업, 사회 또는 규범 같은 면으로 표현되는 '작품'과 '장인정신'에 대해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들은 무형유산에 대해 내재하는 질문에 밀접하게 참여합니다. 만약 영화의 '배우'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유산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유네스코에 의해 제기된 이상한 제약 (특히 <갓의 죽음:장례전통에 관한 연구>와 <플래키와 친구들>에서 보여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뤽 페케)

Special 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Many thanks for this special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Intangible Heritage Film Festival. There are six films on the program: three by Jean Rouch: *Hippopotamus Hunt (HH)*, *The Mad Masters (MD)*, *Mammy Water (MW)*, and three award winning films from the 'International Festival of Jean Rouch (Ethnographic films)': *Butcher Boy*, 2013, by Florian Geyer (France ; AB), *Flacky and Comrades*, 2008, by Aaron Sievers (France ; FC), *Ngat is Dead : Studying Mortuary Traditions*, 2007, by Christian Suhr Nielsen (Denmark ; ND).

All dream-like and ethnographic at the same time (associated with field work), these films restore and construct the reality observed, each in their own manner. These films also have a commonality of a story being told; that they are films and not 'only' documentaries. In each film, film-makers and those who are filmed, have roles that merit attention: the main characters are 'appropriated' by Rouch in his films. They appear to be in their proper place in Geyer's film (AB) and they themselves create a scene or act in a scene in ND and in FC. These films question everything about the societies and the groups that they represent, along with their way of doing things, like working, organizing, producing, relating to one another, living together... However, ND and FC are remarkable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personal relationships and rituals between the main characters ('actors' and film-makers) - the codes, behaviors, power and family relationships, engaging dialogues... are very rich, and they bring us back to the more in-depth questions of visual anthropology. If the questions of encounters and reciprocity between filmmakers and actors occur frequently in the discipline of visual anthropology, they will appear as themes in each of the films presented. These themes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ND and FC with regards to their construction, in addition to their point of views on ethnological relationships.

All of these films invite one to reflect on the notion of work and craftsmanship, whether it is in terms of posture, relationship, apprenticeship and corporation, society and rituals. Also, in all other dimensions, they all closely participate in the inherent questions of intangible heritage, of which this curious limitation posed by Unesco (in FC and ND notably) according to which heritage does not exist if the 'actors' opin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Luc Pecquet)

SPECIAL 1

스페셜 1

하마 사냥

Hippopotamus Hunt | Bataille sur le grand fleuve

FRANCE - 1951 - DOCUMENTARY - 85MIN - HD - B&W - NO ENGLISH SUBTITLE

이 영화에서 영화화전의 예술은,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리에서 잘 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거대한 하마 사냥의 준비과정과 그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마지막 순사까지, 나체를 강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하마사냥 의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메인 캐릭터들은 웃을 듯 씩씩하고 마을로 들어간다. 우리는 사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4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거대한 연간 의식에 참여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루슈는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의도로 연출한 것은, 기술적이게 재의적인 행동이다. 그는 자하는 두 개의 차이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는 두 개의 차이를 철학하게 일치시키며 하고, 각각에 논리도 부여되어 있다. 이 민족지 다큐멘터리가 우리에게 준 문화적 유산의 시점에서 보면, 오늘날 나체로 강의 스포츠(보조 민족의 언어로 강의 주인이라는 뜻)에 어떤 행위는, 건축에 모래가 반드시 필요한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이미 시멘트가 흙을 대체했지만.) (릭 페케)

In this film, the art of film editing leads us to the preparation of a great hippopotamus hunt on the Niger river, where each thing is in its place and in good order and as the final turn of events in which, to signify their defeat, the main characters enter into the village wearing their clothes inside out.

Not only are we attending a hunt (which is extended over a four month period), it is also a great annual ritual. Specifically, that of which Rouch, as he again directs in such a superb manner, is a technical and ritual act; they are and they should be elaborated more beforehand, as the encounters and time frames that interest these two inter-posed dimensions, together each have their own logic.

From the point of view of cultural heritage of this ethnographic document, it is interesting to point out today that the essential of fishing practices by the Soroko on the Niger river (Bazo; masters of the river) is that of sand for construction (Cement has now replaced soil for construction). (Luc Pequ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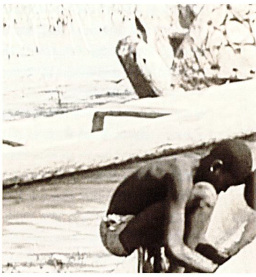
장 루슈 Jean Rouch

Filmography

Le rive plus fort que la mort 2002
The Lion Hunters 1965
Chronicle of a Summer 1960
In the Land of the Black Mag 1947

인문학자인 장 루슈는, 1941년부터 나체로 세네갈에서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1941년 처음으로 카누를 타고 나체로 여행한 루슈는 이듬해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 16일 리 카레라고 자신의 영화 민족학을 구축해 가기 시작한다. 서구의 관찰자적 시선을 벗어나 예도가 모상과 함께 '시네마 에티오피아'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어느 여름의 기록>을 만들었으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신선로 제사장들>은 1957년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하고, <나는 흑인이자>(1959)로 루이앙락상을 수상했다. 2002년 아프리카 나체로에서 별세했다.

Rouch was an ethnographer, a filmmaker, and only sometimes a maker of ethnographic films. He began his long association with African subjects in 1941 after working as civil engineer supervising a construction project in Niger. H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pioneers of Nouvelle Vague, of visual anthropology and the father of ethno fiction. His best known film, one of the central works of the Nouvelle Vague, is *Chronique d'un été* (1961) which he filmed with sociologist Edgar Morin and in which he portrays the social life of contemporary France. Throughout his career, he used his camera to report on life in Africa. Over the course of five decades, he made almost 120 films. He died in an automobile accident in February 2004, Niger.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장 루슈 국제영화제 특별전

엄마 물

Mummy Water | Mamy Water

FRANCE - 1955 - DOCUMENTARY - 16MIN - HD - B&W - NO ENGLISH SUBTITLE

보이스오퍼로 전말하고 있는 '시간들'(바다의 시간들, 서평 소년)의 시간들, 얼마 물의 시간들(바다에서, 시간적 가치들과 그것들의 기반이 되는 관계들은 역사적이고(오르본 부분의 모르탈 요새 : 노예제도의 어두운 그림자), 의례적이(무녀의 장례식과 사마)의 의례적이라는 고집이 계속 제식은 영화의 마법에 의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와 기술 사이에서의 조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두 의식은 사실 아무런 연결이 없다. 시적이(바다에서 노는 어린아이들), 게다가 이 영화는 미학적으로 특히 카누가 바다와 결합되는 방식으로 촬영된 장면은 일관된다. 시적 차이는 영화 후반부의 바다는 절대 다르지 않다 라는 카누 승리의 마지막 자막으로 인해 절정에 달한다. 존재했던 모든 시간들은 영원상이라는 단 하나의 간결한 방식 안에 응축되고 있는 것이다. (릭 페케)

During its running time of 30 minutes, this film attracts attention through different types of times and meetings. Within the 'times' conveyed by the voiceover narrative of Jean Rouch ('times of the ocean, times of the surfing boys, time of Mummy Water') the temporalities and their relationships are historical (the Portuguese Fortress, in overture; the Dark Shadows of Slavery), rituals (two rites, the funeral of the shaman and the ceremony marking the beginning of the fishing season led by the king of Shana, seem to be logically connected through the magic of film, but has, in fact, no connections except that they are both important in the association between ceremony and techniques), and poetic (children 'performing the sea'). On top of this, the film is aesthetic. The scene in which the canoe and the ocean are unified was extremely well filmed. The poetic dimension reaches its climax with the final caption of a Ghanian saying, 'Sea never dry'. All the existing times are summed up in one simple formula: eternity. (Luc Pequet)

▼ 하마사냥 Hippopotamus Hunt

▼ 엄마 물 Mummy Water



신들린 제사장들

The Mad Masters | Les Maitres Fous

FRANCE - 1955 - DOCUMENTARY - 28MIN - HD - B&W - NO ENGLISH SUBTITLE

가나 독립 3년 전에 촬영된 놀랍고 충격적인 이 영화는 지배의 식(儀式) (하우카(haouka) 의식)을 다룬다. 즉 이 영화의 중심인물은 '신비로움'이다. 1955년 파리 인류학 박물관에서 소개되었으나 당시에는 평가가 좋지 않았던 영화 <신들린 제사장들>은 민족 연구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는 이 영화와 함께 인류에서 촬영한다는 행위, 특히 의식의 경우에는 얼마나 필수적일지 알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여기에서 목격하는 하우카 순례자들의 의식을 텍스트만 가지고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장 루슈는 영화 제목에 관해 하우카라는 단어 (바람직한 지배자, 평가의 지배자)와 주인들(유년인)이 미처바른 시민적 상황을 동시에 역력한 언어 유려다 '라고 덧붙이고 감독 연인과 필름노니어의 1981년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말한 바 있다.

의식을 촬영한 장면에서 서구사회와 서구의 기술들은 뛰어난 인물들(의사의 부인, 기사의 기사)과 영국 국기인 유니온 잭, 시민 지에서 주로 쓰는 모자인 피스'벨트, 목동들, 통들의 통상과 궁전, 총사, 승마용 재킷을 대신하는 트럭 벨트와 같은 민중물들을 통해 표현된다. (릭 페케)

This surprising and shocking film filmed 3 years before the independence of Ghana is about a possession ceremony (haouka ritual). The main character in this film is 'colonization'. When *The Mad Masters* was first introduced at France's Musée de l'Homme in 1955, it did not receive good reviews but made a deep impact in ethnic studies. Through this film, we learn how vital the act of filming is in anthropology, especially in the case of rituals. How can I explain in words the ritual of the Haouka worshippers we witness in the film? In a 1981 interview with Italian director Enrico Fichignoni, Jean Rouch made it clear that the word 'haouka' in the title 'is a play on words, concurrently translating the ruler (ruler of mind, ruler of madness) 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masters (Europeans) have gone crazy in colonization.'

In the scenes where the rituals were filmed, the Occidental society and techniques are represented by the eminent characters (the doctor's wife, the locomotive conductor) and artifacts such as the British flag Union Jack, the Pith Helmet used in a colony, rifles, the governor's statute and palace, the general secretary, the truck fan belts as horsewhips. (Luc Pequet)

정육점 견습생

Butcher Boy | Garçon Boucher

FRANCE - 2014 - DOCUMENTARY - 45MIN - HD - COLOR - Asian Premiere

이 영화의 문제의식은 직업이다. 하나의 직업이 영화에서는 정육점)을 만들고 그 후 취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영화의 구조와 리듬을 형성하는 것은 인물에 대한 다양한 스톱들의 연결과 편집 뿐만 아니라, 특히 정육점이라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파리의 거주하는 열 일곱 살의 젊은 지향자의 상황과 일련의 직업 교육 과정들이다. 정육점의 배경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지속적으로 제스처들, 작업 도구들에 맞춰져 다 거간다. 이 작업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 세계(칼, 창, 끌레, 도마, 칼...)를 포함 한 물질적 지체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감독은 놀라운 방식으로 '공정' 물질에 대한 관계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 영화에서 그기에 대한 감각적 표현을 이 영화에서처럼 느끼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릭 페케)

This film reflects on the question of vocation. What is the meaning of learning a vocation (in this film, that of a butcher) and integrating a corporation? What creates this film's structure and rhythm are not only the connecting and editing of various shots of a character, but the series of vocational training received by a 17 year old young Parisian who wants to become a butcher. The film begins with the background noises of a butcher shop, and continues into a close-up of the gestures and tools. It becomes the materialization itself including the entire material world comprising this vocation (dress, gloves, rags, cutting board, knives...). In the end, the director is making an effort to reconstruct the relationships of 'processed' material in a remarkable way. It won't be easy to feel such sensual expressions regarding meat as in this film in any other film. (Luc Pequ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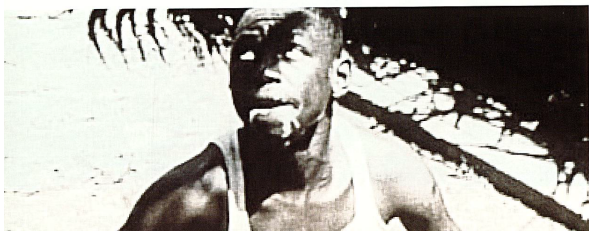
장 루슈 Jean Rouch

인문학자인 장 루슈는, 1941년부터 나체로 세네갈에서 연구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1941년 처음으로 카누를 타고 나체로 여행한 루슈는 이듬해부터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 16일 리 카레라고 자신의 영화 민족학을 구축해 가기 시작한다. 서구의 관찰자적 시선을 벗어나 예도가 모상과 함께 '시네마 에티오피아'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어느 여름의 기록>을 만들었으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신선로 제사장들>은 1957년 베니스영화제 대상을 수상하고, <나는 흑인이자>(1959)로 루이앙락상을 수상했다. 2002년 아프리카 나체로에서 별세했다.

Filmography

Le rive plus fort que la mort 2002
The Lion Hunters 1965
Chronicle of a Summer 1960
In the Land of the Black Mag 1947

▼ 신들린 제사장들 The Mad Mas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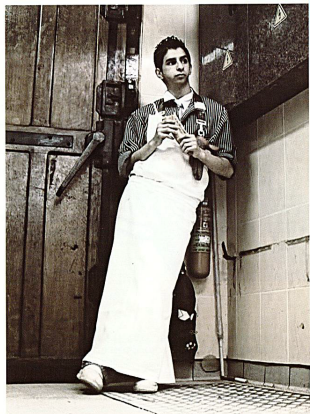
Filmography

Sulfur 2006

플로리안 게이머 Florian Geyer

플로리안 게이머 감독은 영상 인류학을 전공하고 그의 졸업논문 인도네시아 유랑업과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작품은 아르메와 프랑소 오제상을 통해 배급되었고, 여러 주요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다큐멘터리 감독 안 아르메는 플로리안 게이머 감독의 사생활에 대해 집중 연구기도 했다. 제1차 인도네시아 독립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다가, 국영, 국영 등을 촬영 학교(La Ferme)에서 <정육점 견습생>을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현재 역에 전수에 관한 다큐-다큐 <국 인도네시아 관련 <모든 것은 사라져간다>를 작업 중이다.

Florian Geyer graduated in geography, anthropological cinema. His diploma film, *Sulfur*, about an Indonesian sulfur carrier, was bought by Arte and France 5 and received several awards at international festivals. He then directed the making of Yami Arhas-Berhan's project, 6 Billion Others, broadcasted on many international channels. He has directed a dozen short documentaries for the channel Arte. Later, he entered the school La Ferme Films, 'Butcher Boy' received many national awards and also a star from the SCAM (Author's society in France) and has awards in famous national Festivals. Both documentaries are making now. Tackles is about a professional team of rugby players and Everything most disappear about black tourism after an eruption in Java (Indonesia, Merapi).



▼ 정육점 견습생 Butcher Boy

갓의 죽음: 장례전통에 관한 연구

Ngat is Dead: Studying Mortuary Traditions

DENMARK, PAPUA NEW GUINEA, 2007, DOCUMENTARY, 59MIN, HD, COLOR | Korean Premiere



50 스페셜1 장 부속 국제영화의 특집인 Special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그는 우리를 연구하기 위해 왔고, 우리도 그를 연구했다"에서 드러나는 상호성은 장부속영화제 특별전에서 함께 소개되는 <플래키와 친구들>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이 영화의 주인공 인류학자가 자신의 영아비자 죽음을 후 장례식을 치르고, 3년이 지나 관련 영상을 당시 인물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에서도 나타난다. 톤 오토 Ton Otto는 장례식 관련 인물들에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이 다큐멘터리가 받아들여졌는지를 알기 원했고, 이 영화가 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 그들의 동의와 비평을 받고자 하였다.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인류학자의 연구 중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일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들은 영화에 출연하는 인물이자 동시에 주체이다.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영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더불어 영화는 그들의 민중성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영상 인류학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는 이 작품은, 인류학자가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부속의 친구가 되고, 결국 영화의 등장인물 중 한 명으로 녹아들어가 인류학자의 뛰어난 모범사례이다. 영화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결국 영화는 우리가 관찰자인 동시에 사회와 규범 관계 '안'에 있다는 교훈을 준다. (원 페케)

"He came to study us, and we also studied him." This reciprocity, in the opening, also expressed in the Jean Rouch Special's *Flacky and Comrades* comes back at the end. At this moment, 3 years after his adoptive father's funeral (subject of the film), the anthropologist shows them the videos. Ton Otto asks the main characters, in order to know how his own documentary is perceived, and want their agreement and comments. Making movies is an important part of his anthropologist's work. And the filmmaking requires the support of the subject of that study. They are the actors in the film, and at the same time the main subjects. They need the film to express their opinions, but the film also explains their ethnic value. As a great example of visual anthropology, this film is also a good lesson of cultural anthropology, in which the anthropologist becomes a friend in the tribe, engaged on a large time scale, and becomes one of the actors.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aracters in the film is noteworthy. In conclusion, the film teaches us that while we, as observers, are also "inside" the ritual and the social relationships. (Luc Pequet)



크리스찬 수어 닐슨 Christian Suhr Nielsen

크리스찬 수어 닐슨은 오르후스대학교 조교수이자 영화감독이다. 덴마크 무슬림의 신앙 체계를 주목하여 인간의 가시적 영역과 비가시적 영역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Christian Suhr is a filmmaker and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Society, Aarhus University. His current film is research concerns the interface between the visible and invisible dimension of human reali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how Muslim in Denmark experience divine healing.

FILMOGRAPHY

Descending With Angels 2015
Unity Through Culture 2011
Ngat is Dead 2009



톤 오토 Ton Otto

톤 오토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오르후스 대학에서 인류학 및 민족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6년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해 연구해왔다.

Ton Otto, born in the Netherlands, is Professor of Anthropology and Ethnography at the University of Aarhus. He has conducted fieldwork in Papua New Guinea since 1986 with a focus on issues of social and cultural change.



스테펜 달스가드 Steffen Dalsgaard

스테펜 달스가드는 덴마크 출신으로 오르후스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과정 중이다. 그의 연구는 말라테시아와 파푸아뉴기니의 리더십 등 다양한 전통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리스코크 박물관에서 민족지 관련 전시의 컨설턴트로 작업했으며, 그의 죽음은 그의 첫 영화이다.

Steffen Dalsgaard, born in Denmark, is PhD student in Anthropology at the University of Aarhus. His studies revolve around leadership, the state, exchange, ownership and tradition with a regional focus on Malakasia and Papua New Guinea. Steffen has previously worked as consultant for ethnographic exhibitions at Moesgaard Museum. *Ngat is Dead* is his first film.

51 스페셜1 장 부속 국제영화의 특집인 Special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플래키와 친구들

Flacky and Comrades | Flacky et Camarades

FRANCE - 2008 - DOCUMENTARY - 104MIN - HD | COLOR/8&W - No English Subtitle - Asian Premiere



FILMOGRAPHY

아롱 니콜라스 시베스 Aelon Nicolas Sieves

Les Apatrides Volontaires 2014
Au bord de la ligne 2008
Cœurs pour chiens perdus 1999

He works in Marseille, France as a filmmaker. He studied Art and Literature and graduated Marseille-Luminy art school. From 1998 to 2001, he worked Association RLBO art studio and from 2001 to 2013, he had been made documentaries Film Flamme.



52 스페셜1 장 부속 국제영화의 특집인 Special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자연 풍경, 주거 환경, 사회적 그리고 친구들간의 관계를 속에 강하게 새겨진 근원대에 관한 생생한 역사들, 예를 들어 지난날들을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의 일상과 감정을 속에 새겨진 탄광 노동의 역사가 그렇다. 스스로를 반영하는 증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 성장과 이미지 구축에서 영화 속 워킹 광부들은 자신의 삶에 관한 '당사자들'이고 동시에 관찰자들이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구성하는 이해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영화학과 학생들이 20년 전에 수집한 자료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편집한 이 감독은 상징, 감정 그리고 투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노동, 가정, 사회의 일상으로 이끈다. 등장인물 중 한 명에게 탄광은 무엇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서투리로는 흔히 말장대로도 발음되는 '살마'는 무서운 것이기도 하다. '이 살마들은 매복을 하고 있고, 이것들은 기다리고 있어오, 죽이는데 있어서 는 냉혹하기 그지 없거든요.' (원 페케)

Vibrant histories about the modern past firmly inscribed within environment, buildings, social and societal relationships – that's the history of coal mining, inscribed within the daily lives and emotions of the laborers talking about their past. The retired miners in the film are thus the 'actors' of their lives and at the same time observers, implied by the reflection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mage to which they testify. They are also the subjects of the memories they construct. In this formidable montage of documents collected 20 years ago by students of cinema and photography, the director takes us to the daily life of labor, family, and society by showing us the symbols, emotions, and struggles. To one of the protagonists, the costume exercises formidable power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But the 'iron horse', sometimes pronounced as esal in the Rouchian accent, is also formidable. "These iron horses lie in wait. (...) They are waiting, unforgiving (...) as killers." (Luc Pequet)



53 스페셜1 장 부속 국제영화의 특집인 Special1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VOIR AUTREMENT LE MONDE



#35 FESTIVAL INTERNATIONAL JEAN ROUCH

CINEMA ETHNOGRAPHIQUE
DU 4.11 AU 6.12.2016

ENTRÉE LIBRE ET GRATUITE
COMITEDUFILMETHNOGRAPHIQUE.COM



MUSÉE DE
L'HOMME



Avec le partenariat de
suez

Dans la limite
des places
disponibles

스페셜 2. 아티스트 웨이
Special 2. Artist Way